

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이 속 희

서영대학교 간호학과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Elderly People

Lee, Sook-Hee

Department of Nursing, Seoyeong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elderly people.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86 nursing students from a nursing college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 form contain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Kogan's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 (KAOPS) were used to gather the required dat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Results:** Nursing students in this study reported neutral attitudes (121.52 ± 12.63) compared to positive attitudes of Western nursing students in previous studies. Nine out of 17 negative items had higher mean scores than positive item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ssociated with experience feeling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and care for elderly peopl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at changing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Experience of exposure to well-older people may be helpful to promote nursing students' positive attitudes toward elderly people. There is a need to further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AOPS for use with various populations in Korea.

Key Words: Aged, Attitud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의 세계 인구는 69억으로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8%였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0). 우리나라는 근래에 젊은 연령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빠르게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00년 7.2%에서 2010년에 11%인 약 550만 명에 이르렀다. 2026년에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8%에 진입하여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여성 84.1세, 남성 77.2세로 전체 평균 연령은 80.8세

였다(Statistics Korea, 2010).

노화는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기능의 감소와 건강문제 증가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의료현장에서 노인을 응대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돌봄은 간호제공자의 노인에 대한 이해, 태도, 지식과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진다(Erdemir, Kav, Citak, Hanoglu, & Karahan, 2011).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차별적인 고정관념과 지식의 결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실무와 간호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Burns & Nickols, 2000; Courtney, Tong, & Walsh, 2000). 따라서 노인의 돌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는 질적 노인 간호에

주요어: 노인, 태도

Corresponding author: Lee, Sook-Hee

Department of Nursing, Seoyeong University, 1 Seokang-ro, Buk-Gu, Gwangju 500-742, Korea.
Tel: +82-62-520-5086, Fax: +82-62-520-5178, E-mail: shlee45@seoyeong.ac.kr

Received: Oct 17, 2013 / Revised: Dec 13, 2013 / Accepted: Feb 15, 2014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Ajwang, Muliira, & Nankinga, 2010; Courtney et al., 2000; Erdemir et al., 2011; Kilic & Adibelli, 2011; Kucukguclu, Mert, & Akpınar, 2011; Ryan, Melby, & Mitchell, 2007; Yen et al., 2009). 이들 연구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Kogan (1961)의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 (KAOP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ogan은 1961년 미국사회에서 노인의 위치나 지위가 민족, 인종과 종교 등 소수집단의 지위와 비슷하다고 보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이들 소수집단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KAOPS는 노인들의 주거환경, 인지유형, 역량, 외모, 성격, 은퇴 후 독립과 의존, 세대 간 관계, 노인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불편감 등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의미로 진술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연구들에서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은 모두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Kilic & Adibelli (2011)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Erdemir et al., 2011; Kucukguclu et al., 2011; Yen et al., 2009)에서는 긍정적 진술의 문항점수가 부정적 진술의 문항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Erdemir 등(2011)은 12개의 긍정 문항의 평균점수가 6점 만점에 3.55~5.23점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노인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와 태도의 예측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Choi, 2006; Lee, 2012; Lim, 2002; Park & Cho, 2010; Song, 2004; Yang, Oh, Kim, & Bak, 2002). 이들 연구들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 (1998)의 노화 사실 인지 척도(Facts On Aging Quiz I, FAQ1)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화 의미 분별척도(Sanders, Montgomery, Pittman, & Balkwell, 1984)가 이용되었다. FAQ1은 노화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에 대한 사실에 대해 진위로 답하여 지식수준을 평가하고, 그 지식점수를 가지고 노화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주로 노인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사실과 태도문항이 섞여있는 의견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Song, Kim, Kim, & Cho, 2007).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과 부정의 형용사 쌍으로 양극단에 대비시켜 구성된 노화 의미 분별척도로 측정된 연구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Choi, 2006; Lee, 2012; Park & Cho, 2010; Song, 2004), 중립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정적 태도의 문항수가 긍정적 태도의 문항수보다 많았다는 연구보고(Kim, Yang, Oh, & Kim, 2002; Lim, 2002; Yang et al., 2002)도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은 노인들을 현명하고,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고, 호의적이고, 좋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반면, 비활동적이고, 지루하고, 비생산적이며, 아프고, 의존적이고, 보수적이며 매력적이지 못하며, 불평이 많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에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상관관계는 .13~.27의 범위로 나타났다(Choi, 2006; Lee, 2012; Lim, 2002; Song, 2004). 그러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Kim et al., 2002; Park & Cho, 2010; Yang et al., 2002)도 있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함께 살거나 함께 일한 경험, 미래 노인 간호를 희망한 경우(Ajwang, et al., 2010; Erdemir et al., 2011)와 국내연구에서는 동거노인과의 경험이나 노인을 돌봄 경험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2; Kim, Lim, & Sok, 2007; Park & Cho, 2010; Song, 2004).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과의 동거경험과 돌봄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미래의 건강제공자인 간호학생들에게 노인 관련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외국과 국내의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사회문화에 따라 다른 것인지, 측정도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 노인 관련 구체적 상황 안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KAOPS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 간호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Kogan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KAOPS)를 이용하여 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 광역시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일 간호대학 학생을 편의표출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자료의 ANOVA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25, 집단수를 4로 하였을 때 최소 280명이 필요하였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중 289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8%),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286부가 최종 분석대상이었다.

3. 연구도구

1961년 Kogan에 의해 개발된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 (KAOPS)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들의 주거환경, 인지유형, 역량, 외모, 성격, 독립, 세대 간의 대인관계, 노인과의 불편감 등에 대하여 17개의 문항이 각각 부정적 의미의 진술과 긍정적 의미의 진술로 짝을 이루어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 척도로 측정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계산되어 합산된다. 태도의 총점 범위는 34~20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원도구는 부정과 긍정문항이 짝지어 배열되어 있다. Kogan의 조언에 따라 부정문항에 대한 응답이 바로 아래의 긍정문

항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원도구의 문항순서를 흐트러 배열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도구의 원저자에게 E-메일로 접촉하여 KAOPS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국내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Brislin (1980)의 지침에 따라 번역과 역번역, 그리고 예비조사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두 명의 간호학자와 영어전공자가 원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비교한 결과 번역상 의미가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없었지만 표현 어구 상에 차이에 대해서는 상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선택하였다. 그런 다음, 영어와 우리말에 능숙한 전문 번역자에게 역번역을 받았다.

번역한 도구를 간호학교수 4인과 노인전문간호사, 임상간호사, 가정간호전문간호사의 3인으로 구성된 총 7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번역판의 각 문항에 대해 적절성(relevance)과 표현의 명료성(clarity)을 1점-전혀 관련없음(매우 명료하지 않음), 2점-관련없음(명료하지 않음), 3점-관련있음(명료함), 4점-매우 관련있음(매우 명료함)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7명의 전문가가 3~4점을 준 항목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내용타당도 지수(CVI)는 관련성 .92, 표현의 명료성 .88로 나왔다. 전문 평가자 간에 CVI=.80 이상이면 내용타당도가 높은 도구라고 할 때(Polit & Beck, 2003), 본 도구의 문항 적절성은 내용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항 표현의 명료성 부분에서 2명 이상의 평가자간에 불일치한 4개 문항(9P, 10N, 11N, 12N)은 예비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는 번역된 내용이 응답하기에 쉽게 이해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내용전문가들 간에 문항의 명료성에서 불일치한 4개 문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수정하였다. 그 이외의 번역된 문항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도구로 완성하여 사용하였다.

Kogan (1961)이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할 당시 원도구의 신뢰도는 부정진술 문항 척도가 .83, 긍정진술 문항 척도가 .66이었으며, 문항-전체 척도 상관계수 범위는 .10~.70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부정진술 문항 척도 .78, 긍정진술 문항 척도 .68이었고 전체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국가생

명윤리정책연구원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PIRB12-024-02)을 받았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의 자율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구보조원이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10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기술적 통계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또는 ANOVA 분석을 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간 다중비교를 위해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18~47세의 범위로, 평균 나이는 21.5세였고, 여학생이 전체의 90.2%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36.0%), 4학년(7%), 2학년(2.8%)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50.0%), 기독교(30.4%), 천주교(10.8%), 불교(7.3%) 순이었다. 현재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는 25명(8.7%)이었고, 과거에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40명(49.0%)이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으로 느낀 감정은 좋다 23.1%, 그저 그렇다 22.0%, 나쁘다 3.1%의 분포를 보였다. 노인과 함께 일하거나 돌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67명(58.4%)이었고, 돌본 경험의 느낌은 그저 그렇다 32.9%, 좋다 21.7%, 나쁘다 1.7%의 분포를 보였다. 노인학(간호) 강좌를 수강한 대상자는 53.1%였고, 노인을 돌보는데 노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95.8%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노인시설이나 병동에서 노인 간호를 하겠다는 관심을 나타낸 대상자는 전체의 47.6%였다(Table 1).

2. 노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총점 204점 만점

에서 121.52 ± 12.63 점이였다. 부정 진술문항과 긍정 진술문항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17개의 부정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의 태도점수는 평균 61.68 ± 8.58 점, 긍정 문항에 대한 평균은 59.84 ± 7.03 점이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항별로는 평균 2.53~4.33점의 범위를 보였고, 전체 평균은 3.57점이였다. 부정과 긍정으로 짝지워진 17개 문항 중에서 8개 문항에서 긍정 문항점수가 부정 문항점수보다 높았다. 즉, 노인들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하기를 더 선호하고($M=4.33$), 젊은 사람과 똑같은 결점을 가진 존재($M=4.33$)로 보는 문항점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노인의 과거 경험 이야기는 흥미롭고($M=4.20$), 적당히 노인과 이웃해 사는 것($M=4.13$)이 좋으며, 노인들 간의 다른 특성($M=3.94$)을 인정하고, 젊은 사람들과 한 거주지에 사는 것이 좋다($M=3.63$)는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인의 사고방식이 젊은이와 다른 점($M=2.90$), 상황에 쉽게 적응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M=2.62$)는 문항은 부정보다 긍정점수가 높았지만 중간 3.5점보다 낮은 부정적인 태도 점수를 나타냈다.

17개 문항 중에서 9개 문항에서 부정 문항점수가 긍정 문항점수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에 따른 지혜의 누적($M=4.23$) 문항점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집이나 외모의 청결 유지($M=4.08$), 노인과의 동석 시 불편감($M=4.03$), 화를 잘 내고 무례한 노인의 성격($M=4.02$), 경제와 정치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M=4.00$), 남에게 필요 이상의 애정과 보호요구($M=3.65$) 문항 순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불만이 많은 점($M=3.45$),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충고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M=3.22$) 등의 문항에서는 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 특성별 t-test와 ANOVA를 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노인과의 동거 경험과 노인을 돌본 경험의 느낌에 따라 태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의 동거에서 좋은 경험이 있거나($F=5.86, p<.010$), 노인을 돌본 경험이 좋았던 대상자($F=6.85, p<.001$)가 '그저 그런' 느낌의 경험을 한 대상자보다 점수가 높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 이외의 다른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Age (year)	≤ 20	211 (73.8)	21.5±4.2
	21~25	44 (15.4)	
	26~30	20 (7.0)	
	31 ≥	11 (3.8)	
Gender	Male	28 (9.8)	
	Female	258 (90.2)	
Grade	1st	155 (54.2)	
	2nd	8 (2.8)	
	3rd	103 (36.0)	
	4th	20 (7.0)	
Religion	Protestant	87 (30.4)	
	Catholic	31 (10.8)	
	Buddhist	21 (7.3)	
	None	143 (50.0)	
	Missing	4 (1.4)	
Experience in the present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Yes	25 (8.7)	
	No	261 (91.3)	
Experience in the past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Yes	140 (49.0)	
	No	145 (50.7)	
	Missing	1 (0.3)	
Feelings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Good	66 (23.1)	
	Bad	9 (3.1)	
	Not so bad	63 (22.0)	
	Others	7 (2.4)	
	No experience	141 (49.3)	
Experience in caring for elderly people	Yes	167 (58.4)	
	No	117 (40.9)	
Feeling of caring for elderly people	Good	62 (21.7)	
	Bad	5 (1.7)	
	Not so bad	94 (32.9)	
	Others	7 (2.4)	
	No experience	118 (41.3)	
Received education in geriatrics	Yes	152 (53.1)	
	No	133 (46.5)	
Needs for knowledge and skill in caring for elderly people	Strongly confident	130 (45.5)	
	Mildly confident	144 (50.3)	
	Not confident	12 (4.2)	
Interest in caring for elders in the future	Yes	136 (47.6)	
	No	150 (52.4)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총점이 121.52점으로써, 중간 119점에 근사한 중립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같은 KAOPS로 측정된 외국의 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태도가 긍정적이라

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달랐는데, Erdemir 등(2011)의 연구에서는 132.94점, Kucukguclu 등(2011)의 연구에서는 153.28점, Yen 등(2009)의 연구에서는 144.30점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7개의 긍정 문항 중에서 8개 문항의 점수가 부정 문항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Erdemir 등(2011)의 연구에서는 12개, Kucukguclu 등

Table 2. Score for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according to Items of the Scale

(N=286)

Item	Item content	M±SD
1N	It would probably be better if most old people lived in residential units with people their own age.	2.96±1.23
1P	It would probably be better if most people lived in residential units with younger people.	3.63±1.22
2N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about most people; it's hard to find out what makes them tick.	2.59±0.93
2P	Most old people are really no different from anybody else; they're as easy to understand as younger people.	2.90±0.93
3N	Most old people get set in their ways and are unable to change.	2.53±1.15
3P	Most old people are capable of new adjustments when the situation demands it.	2.62±0.91
4N	Most old people would prefer to quit work as soon as pensions or their children can support them.	4.14±0.99
4P	Most old people would prefer to continue working just as long as they possibly can rather than be dependent on anybody.	4.33±1.05
5N	Most old people tend to let their homes become shabby and unattractive.	4.08±1.03
5P	Most old people can generally be counted on to maintain a clean, attractive home.	3.69±1.11
6N	It is foolish to claim that wisdom comes with age.	4.23±1.11
6P	People grow wiser with the coming of old age.	4.12±1.15
7N	Old people have too much power in business and politics.	4.00±1.11
7P	Old people should have power in business and politics.	3.89±1.07
8N	Most old people make one feel ill at ease.	4.03±1.01
8P	Most old people are very relaxing to be with.	3.24±1.03
9N	Most old people bore others by their insistence on talking "about the good old days."	3.83±1.12
9P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entertaining qualities of most old people is their accounts of their past experiences.	4.20±1.01
10N	Most old people spend too much time prying into the affairs of others and giving unsought advice.	3.22±1.01
10P	Most old people tend to keep to themselves and give advice only when asked.	2.81±0.85
11N	If old people expect to be liked, their first step is to try to get rid of their irritating faults.	3.72±1.15
11P	When you think about it, old people have the same faults as anybody else.	4.33±0.80
12N	In order to maintain a nice residential neighborhood, it would be best if not too many old people lived in it.	4.12±1.12
12P	You can count on finding a nice residential neighborhood when there is a sizeable number of old people living in it.	4.13±1.00
13N	There are a few exceptions, but in general most old people are pretty much alike.	3.04±0.91
13P	It is evident that most old people are very different from one another.	3.94±1.21
14N	Most old people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ir personal appearance; they're too untidy.	4.08±1.09
14P	Most old people seem quite clean and neat in their personal appearance.	3.25±0.89
15N	Most old people are irritable, grouchy, and unpleasant.	4.02±0.96
15P	Most old people are cheerful, agreeable, and good humored.	3.02±0.90
16N	Most old people are constantly complaining about the behavior of the younger generation.	3.45±1.10
16P	One seldom hears old people complaining about the behavior of the younger generation.	2.56±0.98
17N	Most old people make excessive demands for love and reassurance than anyone else.	3.65±1.07
17P	Most old people need no more love and reassurance than anyone else.	3.19±1.17
Total item mean		3.57±0.37

Table 3. Score for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é
Age (year)	≤ 20	122.65±13.01	1.16	
	21~25	120.96±11.21		
	26~30	118.55±16.29		
	≥ 31	117.73±13.45		
Gender	Male	122.79±13.37	0.56	
	Female	121.38±12.56		
Grade	1st	121.21±13.08	0.31	
	2nd	125.38±17.10		
	3rd	121.51±12.06		
	4th	12.35±10.47		
Religion	Protestant	120.59±10.63	0.30	
	Buddhist	121.10±10.77		
	Catholic	121.19±13.96		
	None	122.19±13.82		
Experience in the present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Yes	124.64±15.26	1.30	
	No	121.22±12.33		
Experience in the past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Yes	122.34±13.00	1.15	
	No	120.62±12.23		
Feelings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Good ^a	126.56±13.36	5.86 (.001)	a > b, c
	Bad	121.78±13.76		
	Not so bad ^b	118.78±11.03		
	Others ^c	112.14±13.00		
Experience in caring for elderly people	Yes	121.07±12.61	-0.70	
	No	122.13±12.68		
Feeling of caring for elderly people	Good ^a	126.27±12.20	6.85 (< .001)	a > b
	Bad	123.80±12.42		
	Not so bad ^b	117.48±11.82		
	Others	123.29±12.59		
Received education in geriatrics	Yes	121.16±12.23	-0.43	
	No	121.81±13.09		
Needs for knowledge and skill in caring for elderly people	Strongly confident	122.28±13.58	1.16	
	Mildly confident	120.79±11.24		
	Not confident	121.92±17.64		
Interest in caring for elders in the future	Yes	122.94±14.14	1.82	
	No	120.23±10.97		

(2011)과 Yen 등(2009)의 연구에서는 9개 문항으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학생보다 외국의 학생들이 노인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독립성, 과거 경험 이야기, 노인들 간의 다른 특성, 적당히 노인과의 거 주지나 이웃해 사는 것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집이나 외모에 대한 청결유지, 노인과의 동석 시 느끼는 불편감, 젊은 세대 간의 갈등, 노인의 화 잘 내고 무례한 성격, 심리적인 의존감과 같은 부정 문항점수가 긍정 문항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상기 국외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외국 대학생들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특히 Kogan (1961)의 연구에서 긍정문항의 점수(M=64.14)가 부정문항의 점수(M=54.87)보다 높은 연구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대상자들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중립적이지만 부정문항의 점수(M=61.68)가 긍정문항의 점수(M=59.84)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생각이나 태도를 강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한 국내의 연구에서 간

호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 보고(Choi, 2006; Kim et al., 2002; Song, 2004; Yang et al., 2002; Yoo, Park, & Kim, 2007)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Kim 등(2002), Lim (2002), Yang 등(2002)의 연구에서 중립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정적 태도의 문항수가 긍정적 태도의 문항수보다 많았다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달랐다.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사회문화에 따라 다른 것인지, 측정 도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한 본 연구결과와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들을 비교한 결과, 개인의 태도와 같은 속성은 오랜 사회적 관념과 가치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형성되는 문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의 연구대상자들에게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지만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인 것으로 나온 반면,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외국의 연구들에서 대상자들은 본 연구와 다르게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과의 동거 경험과 노인 돌봄 경험의 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노인과의 동거나 돌봄 경험이 좋았던 대상자가 그저 그런 경험을 한 대상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경험이 좋은 나쁜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노인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서 부정 또는 긍정의 태도를 보이지만, 그저 그런 느낌의 경험자는 노인에 대한 감정적 체험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응답에 진정성이 부족하여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노인과의 동거나 돌봄 경험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나쁘더라도 내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민이 높아 긍정적 태도점수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이지만 긍정보다 부정인술의 문항 점수가 높게 나온 것과 상통하는 결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은 노인과 함께 산 경험이 있거나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태도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Erdemir 등(2011)의 연구와 노인과의 동거경험, 미래 노인 간호 희망과 지식이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Ajwang 등(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국내에서도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노인과의 좋은 동거경험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02; Kim et al., 2007; Park & Cho, 2010; Song, 2004).

이와 같이 간호학생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유의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난 노인과의 동거 및

돌봄에 대한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잘 늙은(well-older) 노인에 대한 노출기회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돌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실제로 Ryan 등(2007)은 성인간호학 수강학생에게 1년 동안 지역사회 내의 잘 늙은(well-older)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한 후에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더니, 연구결과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1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KAOPS는 서양문화권에서 오래전에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번역, 역번역, 예비조사의 과정을 통해 언어적 차이로 인해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또한 연구대상자가 일간호대학의 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없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규모의 표집과정을 이용한 연구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결론

미국에서 개발된 Kogan의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121.52 ± 12.63 점으로 중립적 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 문항의 점수가 긍정 문항의 점수보다 약간 더 높고 문항수도 많은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나 태도를 강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일반적인 노인의 성격과 활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던 것과 달리 노인의 특성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노인과의 좋은 동거경험과 돌봄 경험의 두 변수를 제외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 간호 교육과정과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현장에 있는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다른 집단에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에게 Kogan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Ajwang, M., Muliira, J. K., & Nankinga, Z. (2010). Continuing education in geriatrics for rural health care providers in Uganda: A needs assessment. *African Journal of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2(2), 3-8.
- Brislin, R. W. (1980). Transl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oral and written material. In: H.C. Triandis and J. W. Berry (ed.),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389-444). Boston: Allyn & Bacon.
- Burns, R., & Nickols, L. O. (2000). Interdisciplinary geriatric primary care evaluation and management: Two-year outcome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8, 8-13.
- Choi, K. A. (2006).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ourtney, M., Tong, S., & Walsh, A. (2000). Acute care nurses' attitudes toward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6(2), 62-69.
- Erdemir, F., Kav, S., Citak, E. A., Hanoglu, Z., & Karahan, A. (2011). A Turkish version of Kogan's attitude toward older people(KAOP)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2, e162-e165. <http://www.elsevier.com>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Kilic, D., & Adibelli, D. (201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gan's attitude towards old people scale in the Turkish society. *Health*, 13(9), 602-608.
- Kim, K. B., Lim, J. B., & Sok, S. H. (2007).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towar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3(1), 13-21.
- Kim, S. Y., Yang, K. M., Oh, H. E., & Kim, J. S. (2002).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21-36.
- Kogan, N. (1961). Attitudes towards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1), 44-54.
- Kucukguclu, O., Mert, H., & Ak1nar, B. (201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urkish version of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 3196-3203.
- Lee, E. H. (2012). *The analysis of nurses'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and care performance for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im, Y. S. (2002).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Palmore, E. B. (1998).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Park, H. U., & Cho, B. H. (2010).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for old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Nursing*, 17(1), 36-44.
- Polit, D. F., & Beck, C. T. (2004).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7th ed.).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Philadelphia.
-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0). *2010 World Population Data Sheet*. Retrieved July 10, 2012, from <http://www.prb.org/pdf10>
- Ryan, A., Melby, V., & Mitchell, L. (2007).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n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intervention on nursing students'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2, 93-101.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t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ong, E. J. (2004). *Nurses and nursing students'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ong, M. S., Kim, S. M., Kim, J. I., & Cho, N. O. (2007). *Measurement in Gerontology Research*. Seoul: Koonja Press.
- Statistics Korea. (2010) *Estimated future population 2010-2060*. Retrieved August 15, 2012, from <http://kostat.go.kr>
- Yang, K. M., Oh, H. E., Kim, J. S., & Bak, Y. J. (2002).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Chosun Medical Journal*, 27(1), 256-262.
- Yen, C. H., Liao, W. C., Chen, Y. R., Kao, M. C., Lee, M. C., & Wang, C. C. (2009). A Chinese version of Kogan's Attitude Toward Older People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1), 38-44.
- Yoo, M. S., Park, J. H., & Kim, Y. S. (2007). Image and attitude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Nursing*, 14(2), 83-90.